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  |  |  |  |
| --- | --- | --- | --- |
|  | **교과목명** | : | 한국사의 이해 |
|  | **학번** | : | 202234-153799 |
|  | **성명** | : | 한승환 |
|  | **연락처** | : | 010-2862-0200 |

EMB000023580f65 ※ A4용지 편집 사용

목차

1. 1번 문제
   1. 단군신화를 통한 고조선 성립 배경과 단군신화의 역사적 의의
   2. 삼국이 연맹체 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
2. 나의 연보
3. 일부 시기 자서전
4. 1번 문제
   1. 단군신화를 통한 고조선 성립 배경과 단군신화의 역사적 의의

청동기시대에는 청동기의 발달과 농업 경제체제로 생활 양식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분화가 진행되었으며 석기시대와 비교하여 농업 생산의 증대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부족생활이 사회의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을 토대로 요동과 한반도에서 서북지역에서 살던 부족들은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통합된 군장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조선이라는 최초의 국가가 성립되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는 형태의 단군신화인 삼국유사에서 기록된 단군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곰과 호랑이는 기원전 사회에서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적 풍습이었던 토테미즘을 숭배하던 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시 고조선은 여러가지 부족이 통합하여 공통된 청동기시대의 문화를 공유하여 이루어진 군장사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에서는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고조선을 건립했다고 전달하며, 이러한 우리 고유의 오래된 역사를 통해 중국과 차별화를 둘 수 있고 동북아 역사상 많은 고초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마다 백성과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 자주성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 1. 삼국이 연맹체 구가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

초기 삼국시대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삼국시대에는 5부 혹은 6부로 이루어는 부족 집단과 여러 군장사회 연합되어 운영되는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부족과 군장사회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들은 각 부의 지배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였는데 고구려의 제가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백제의 정사암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다른 부에서는 관리하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하며 영역의 백성을 다스렸다.

이러한 삼국사회에서 먼저 고구려, 그리고 백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순서대로 왕을 중십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고대국가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각 나라들은 각기 다른 관등을 만들고 정비하였으며, 백제와 신라는 관복의 색을 분리하여 관등의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각 부의 지도자들을 국과의 관리로 배정하였으며 해당 영역의 통치에서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며, 중앙집권적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1. 나의 연보

1998년 :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아버지 한동우와 어머니 김경희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2003년, 5살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선교원 입학.

2005년, 8살 : 구미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이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대구남부초등학교 입학.

2011년, 14살 : 대구남부초등학교 졸업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원화중학교 입학.

2014년, 17살 : 원화중학교 졸업 및 대구광역시 상인동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입학.

2015년, 18살 : 현대자동차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기업간 MOU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기술직 채용과정 합격.

2017년, 20살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및 6개월간 회사 연수 입소.

2018년, 21살 : 전라남도 31사단 광주사단 82연대 4대대 레이더기지 레이더병으로 입대.

2019년, 22살 : 군대 병장 만기 전역.

2020년, 23살 : 현대자동차 전문인력기술 9기 최종 면접 합격 및 1달간 회사 연수 입소. 이후 자동화 기술부에서 배치 및 순환실습.

2021년, 24살 ~ 현재 : 현대자동차 자동화기술부 로봇기술과 기술사원으로 배치

1. 2020년에서 현재까지의 현대자동차에서의 직장생활

중학교 시절 가정형편에 넉넉하지 않았기에, 나는 특목고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상인동에 위치하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업 성적에 몰두하였고, 스펙을 쌓고, 유형별 절차와 최종 면접까지 본 후 합격을 한 뒤로 고등학교 졸업, 수년간에 걸친 회사 연수, 군대 전역을 끝으로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으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식 입사는 2020년으로 원래는 2019년에 군대 전역 후 입사 예정이었으나, 2019년말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입사시기가 늦어지다가, 2020년 6월에 정식 입사를 하게 되었다. 6월에 정식 입사를 하고 난 뒤 경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연수원에서 한달동안 인성 및 기술 교육을 받았다. 코로나 초기 병원의 병실이 부족할 때 글로벌 연수원을 임시 병동으로 써왔기 때문에 입사 및 연수원 입교가 늦어진 것이었다.

연수원에 입교를 해서는 엑스퍼트라는 기업교육 전문업체 강사분들이 인성과 관련된 교육을 2주간 진행해 주셨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성내 연수원에서 기술교육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경주 연수원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장의 축하 인사를 통해 정식 입사식을 진행하였고 사원증도 수여 받았다.

연수 기간 중 회사내 희망부서배치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부서별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따로 다같이 희망 부서를 위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나는 자동화기술부라는 부서에 지원을 하였다. 그 부서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이 부서에는 해외출장이 잦고 그로인하여 어느 정도의 어학실력이 요구가 되었는데 마침 가지고 있던 토익(TOEIC) 점수가 높았고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에, 면접에서 어학실력을 집중적으로 어필한 결과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 배치를 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를 받은 부서에 각자 출근을 시작하였다. 나는 처음 부서에 출근을 했던 날, 부서의 과 및 그룹별 동료들에게 인사 및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과 및 상위 부서, 협력부서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며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자동화기술부는 나와 나의 동기 한 명, 총 두 명이 합격했었다.

처음 1년간은 과별로 순환배치 및 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 파악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으며, 이 때 만난 선배분들은 하나같이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어리숙한 나를 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며 이것은 내가 현재 부서와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부서 내 과별로 희망 과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로봇기술과 전자기술적으로 배워 보고 싶고 그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어서 로봇기술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그러한 의중을 말씀드렸다. 이 면담에서 부서장님은 나에게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공부를 더 해서 자기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지금도 그때의 대화내용은 잊히지 않는데, 그 대화는 입사를 한 것이 삶의 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끝까지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평소 학구열이 높은 편에 속하던 나는 회사 입사를 하고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퇴근 후 공부를 병행해왔다.

로봇 기술그룹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2년 5월, 내가 속한 그룹의 그룹장님은 어느정도 업무파악이 되었으니 해외 프로젝트도 참가하기 시작하라고 하셨고, 나의 첫 해외출장으로 인도 첸나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인도법인데 약 한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해외업무라서 긴장이 되었지만 같이 갔던 선배들이 나를 잘 다독여 주셨고 업무를 쉽게 잘 가르쳐 주셔서 무리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인도라는 나라 특성상 한국과 위생의 상태가 많이 달랐는데 이로 인해 매일 복통에 설사를 동반하며 지내왔는데 나 뿐만 아니라 같이 출장을 온 한국사람들 역시 같은 증세를 보였다. 다행히 상비약을 한국에서 챙겨와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복통은 계속해서 있었다. 그런 와중에 점점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더니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2주간 나의 숙소 방에서 격리를 해야 되었다. 다행히 증상은 3일정도만 심하게 있다가 그 후로 특별히 복용한 다른 약 없이 호전이 되었고, 당시 현지에 숙소를 운영하던 한국인 사장님이 매일 정성스러운 식사를 격리 중인 나를 위해 챙겨 주셔서 격리를 하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와중에 고마움을 느끼며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어떻게 인도출장이 끝이 나게 되고 귀국을 하여 국내 업무를 보는 와중에, 귀국 두 달 뒤인 8월에 터키 출장이 잡혔었다. 갑자기 생긴 출장이라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같이 출장을 가던 선배님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며 나를 잘 챙겨 주셨다. 착하고 친절한 직장 선배들과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다.

터키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번에도 약 한달간 해외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인도에 출장을 한 번 갔다가 와서 그런지 터키업무에는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고, 터키사람들 특유의 환대하는 문화 덕분에 현지 생활도 문제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터키 현지 직원들이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해주어서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다. 업무에서도 터키 현지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도와주어서 무사히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그 이후 2022년도는 더 이상 해외 업무없이 국내 울산공장에 주로 업무를 보며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2023년에는 장기 프로젝트로 체코법인의 일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체코에는 각각 약 40일정도를 총 네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지금은 두번째 출장을 마무리 지었으며 체코에 두 번 더 출장을 가야 된다. 이번 출장은 유별나게 성격이 까칠한 선배와 가게 되어서 그로인한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한국에 있는 선배들이 그 사정을 잘 알기에 가끔씩 연락을 해 주셔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밝게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만 3년 안되게 직장일을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옆에서 나를 위해주는 선배들이 존재하기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